

재미한인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정 효 구*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5) 원체협의 세계 |
| 2. 재미한인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 6) 타향의 고향화 |
| 1) 자아정체성의 토대 | 3. 결 어 |
| 2) 관계와 연속의 세계 | 참고문헌 |
| 3) 신화적 세계 | 영문초록 |
| 4) 모성적 세계 | |

1. 문제제기

재미한인 시인들이 문예지에 발표한 시는 물론 그들이 발간한 개인 시집을 살펴보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재미한인 시인이란 대부분의 시인들이 고향과 관련된 시를 쓰고 있으며, 고향이란 문제야말로 재미한인 시인들의 정신세계를 시종일관 지배하는 중요한 시적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왜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물음에 우선 한 두 가지 외형적인 답을 내놓자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재미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인 시인들은 이민자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고향 혹은 고국을 떠나 미국이란 이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들은 공간으로서의 고향뿐만 아니라 익숙한 사회로서의 고향을 떠나 이역의 이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그들이 떠난 고향 혹은 고국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달려갈 수 있는 근거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아주 먼 거리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넷째로, 그들이 고향 혹은 고국을 떠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들인 재미한인 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데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대강 이와 같은 네 가지 외적 이유를 들어보더라도,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 작품과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고향 혹은 고국이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빈번하게 등장하는가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이러한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내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재미한인 시인들의 정신구조는 물론 그들의 시적 주제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미한인 시인들 가운데 그 어떤 다른 시인들보다도 고향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보여준 두 시인 - 최연홍¹⁾, 최정자²⁾ - 의 시집 각각 2권씩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최연홍은 제1시집 『井邑詞』³⁾와 제2시집 『한국行』⁴⁾을 통하여, 최정자는 제3시집 『서울로 서울

1) 최연홍은 1941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출생하였다. 1963년 연세대학 정법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196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의 인디애나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후 미국 국방장관실 환경정책 보좌관, 미국 주택성 차관보 특별보좌관을 지내고, 위스콘신, 버지니아, 미시시피 주립대학, 워싱턴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6년 귀국하여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에게는 제1시집 『井邑詞』, 제2시집 『Autumn Vocabularies』, 제3시집 『한국行』이 있다.

2) 최정자는 1942년 충남 당진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였다. 1983년 『시문학』을 통하여 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1987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제1시집으로 『달개비꽃』, 제2시집으로 『시추선』, 제3시집으로 『서울로 서울로』, 제4시집으로 『개망초꽃 사랑』, 제5시집으로 『새가 아닌 새』, 제6시집으로 『돌아오는 목숨』, 제7시집으로 『문탁의 등대불』이 있다.

로』⁵⁾와 제4시집 『개망초꽃 사랑』⁶⁾을 통하여 고향에 대한 그들의 강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네 권의 시집 속에는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가 그대로 내재돼 있다. 따라서 이 네 권만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더라도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재미한인 시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미한인 시에 나타난 고향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시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재미한인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1) 자아정체성의 토대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와 같은 물음을 갖는다. 이런 물음은 한 인간의 자아정체성 획득이라는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한 인간이 이런 물음 앞에서 납득할(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간의 삶은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와 같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런 물음 앞에서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가 얻어낸 해답 앞에서 자신감과 당당함 더 나아가 자기긍정과 자아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은 한 인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⁷⁾

3) 최연홍, 『井邑詞』(서울 :나남, 1987).

4) 최연홍, 『한국行』(서울 : 푸른숲, 1997).

5)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서울 : 오상, 1990).

6) 최정자, 『개망초꽃 사랑』(서울 : 모방과 모반, 1993).

7) 자아정체성의 획득과 형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릭 H. 에릭슨의 아이덴티티 이론을 중심으로 삼아 자아정체성 이론을 탐구해 놓은 박아청의 저서 『아이덴티티의 세계』(서울 ; 교육과학사,

고향은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는 근본적인 곳이다. 우리는 그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고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이런 고향과의 만남은 자아정체성의 첫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⁸⁾ 고향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자아정체성의 첫 자리를 형성하는 곳이며,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자아정체성의 첫 부분을 이루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자아정체성의 첫 장을 시작하는 세계이며,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자아정체성의 첫 단추를 꿰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이고, 언어적으로도 자아정체성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곳이다.

한 인간은 이런 세계와 분리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살다 고향에서 생을 마칠 때,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가장 적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농경·목축사회가 역사의 저편으로 기울어지고, 근대도시문명사회가 역사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향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이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고향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고향이 문명사의 폭력 앞에서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사회적 편견과 권력의 이동에 의하여 잊고 싶은 세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고향을 부정하고는 자아정체성의 토대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싫든 좋든 자신의 고향,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의 뿌리와 화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고향을 부정하는 순간 그의 자아정체성은 토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고향과 화해하지 못하는 한, 그의 자아정체성은 불행 속에서 나뒹굴게 되기 때문이다.

1990)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8) 이 점에 대해서는 전광식, 『고향』(서울: 문학과지성사, 1999), pp.25 ~36 참조. 여기서 전광식은 고향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의식도 싹트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고향이 지닌 4가지 특성을 열거하고 있다. 그가 열거한 고향의 네 가지 특성은 첫째, 둘러싸인 자연 풍경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둘째, 가게의 혈연 관계 속에서의 결속이 있는 장소이고, 셋째, 언어·관습·전통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들과의 공동체의 장소이며, 넷째, 자연·가족·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뿌리가 착근(着根)되는 생활 공간이라는 것이다.

재미한인 시인, 최연홍과 최정자, 이 두 시인의 시를 보면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아니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회복하고 확인하며 형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은 수시로 과거 쪽으로 기운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과거 쪽으로 기우는 것은 과거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과거의 발견과 긍정을 통하여 현재의 자아를 보다 공고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① 고향에는 빈 집만이 기다리고 있어도 고향엘 간다. 3대가 묻혀 있는 산에 올라 외국에 살고 있는 장손의 용서를 빈다.

- 최연홍의 「한국행」의 부분⁹⁾

- ② 왜 그럴까
내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資本과 科學의 나라에
떠 있을까
사유의 나비는
고향 金길과 종로의 찻집
嘉會洞, 延大의 숲속을
떠나지 않지
나의 大陸을 朱蒙의 高句麗로
나의 歷史를 거기 廣開土王의
全盛時代라 찾아가다가
꿈에서 깨어나고

- 최연홍의 「버지니아 詩篇 - 夏鉉에게」의 부분¹⁰⁾

방금 2편의 시를 인용하였다. 우선 인용시 ①을 보면,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시인의 고향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대처로 떠난 <빈집>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고향을 찾아간다. 그가 이처럼 그러한 고향을 찾아가는 까닭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그 고향이 <빈집>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보면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의 삶이 추억 속에 생생한 현재로 자

9) 최연홍, 『한국행』, p. 23.

10) 최연홍, 『井邑詞』, p.79.

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고향 속에는 그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조상들이 무덤 속이나마 자리를 잡고 존재하면서 그를 통시적인 연속성 속에 연결시키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고향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시인에게 부정할 수 없는 고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며, 그런 고향과 그 고향에서 이루어졌던 삶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이른바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터이다.

이제 인용시 ②를 보기로 하자. 인용시 ②를 볼 것 같으면, 고향이라는 구체적인 말은 물론 그 고향의 변주 및 확대형태인 종로, 嘉會洞, 延大, 高句麗, 廣開土王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나는 여기서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는 고향의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전제를 말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인간은 자아정체성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는 소위 <屬地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¹¹⁾.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확인하고 그곳에 속함으로써 자기자신이야말로 이리이러한 존재이다라는 규정 속에서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고향은 일차적으로 한 인간에게 이런 속지의식을 충족시켜주는 곳이다. 자신이 어떤 고향의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 고향에 속한다는 것 - 인간들은 이런 자기규정을 통하여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용시 ②에 나오는 종로, 가회동, 연대, 고구려, 광개토왕 등과 같은 고향의 변주 및 확대형태들은 인용시 ②의 시인으로 하여금 그가 이들에 속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다. 그는 종로, 가회동, 연대, 고구려, 광개토왕 등과 같은 존재들에 속함으로써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밝히고, 더 나아가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찾음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연홍의 다른 시들을 함께 보면, 자기정체성의 토대확립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그의 자기규정이 계속하여 나타난다. 그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미국을

11) 정광식은 그의 저서 『고향』에서 고향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 대표적 학자로 짐멜과 튀니스를 거론하면서, 짐멜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상징적 장소와 결속돼 있거나 속지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고향은 사회적 내지 인격적 연대를 느끼게 하는 곳으로 한 인간으로 하여금 결속성과 속지성을 갖게 하는 대표적 존재라고 한다. 정광식, 앞의 책, p.27.

타국으로 인식하며, 미국 혹은 서양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그 자신을 <東洋의 貴公子>로, 이어서 이보다 더 구체적 지역인 <한국>의 아들로, 다시 더 구체적 지역인 <충청도>의 청년으로, 또다시 보다 구체적 지역인 <정읍>의 소년으로 그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조선>으로, <신라>와 <고구려>로, 마침내는 저 단군시대로 소급시키며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언제 보다 더 고향을 통해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확립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간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신이 현재의 그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느낄 때, 떠나온 고향에 대해 집착하는 정도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못할 때, 한 인간은 현실 속에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보려는 본능적 욕구를 갖고 과거의 고향을 향한 집착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한 고향을 통하여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한 인간의 삶은 참으로 위태롭고 불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재미한인 시인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미국에 온전히 동화되거나 그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 채, 미국을 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를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미국땅이 남의 땅, 남의 골목길, 탈향의 땅, 실향의 땅, 이국어의 거리, 낯선 산하, 공포의 땅, 서먹한 땅, 이방 문명의 기슭, 남의 하늘, 다관, 이방인의 땅, 이종의 땅, 남의 터, 외국, 외지, 타인의 도시, 이국의 뜰 등과 같은 말들로 표현되고 있다.¹²⁾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 속에 고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니와,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화와 주인의식 속에서 살았던 고향을 회상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이 점에 대해서는 정효구, 「재미동포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의식의 변천과정 연구(II)」, 『개신어문연구』 19집(2000. 12), p. 358.

2) 관계와 연속의 세계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서 고향은 <관계와 연속>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데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관계와 연속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와 연속의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 관계와 연속의 삶이란 나와 나로 표상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 및 사물 사이가, 폐쇄가 아닌 개방 속에서, 소외가 아닌 동화 속에서, 배제가 아닌 화해 속에서, 경쟁이 아닌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재미한인 시인이 아니더라도 인간들은 이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며, 그런 세계가 이룩되기를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주목하는 까닭은 그들이 고향을 떠난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이란 머나먼 땅에 살고 있으며, 그 머나먼 미국이란 나라에서의 삶이 아직까지는 관계와 연속 속에서의 삶이라기보다 소외와 단절 속에서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¹³⁾

① 서울에서
인사동 소식이 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천상병 시인은
하늘로 돌아갈 여비가
없어
다시 살아날 수밖엔 없는
천상병 시인은

부인 목여사가 있는 카페
「귀천」이나 나온다는데

13) 탈고향화와 탈고국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더 나은 권력과 부 그리고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해, 또는 문명지향적이며 물질중심적인 가치관 때문에, 현대도시사회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 때문에, 탈고향화와 탈고국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을 떠나 자리를 옮긴 곳에서 그들은 깊은 이방인 의식과 무관계 군집체의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광식, 앞의 책, p. 98. 참조.

「귀천」에서 목역사는
눈물받이로나 쓰라는가
찾잔을 보내오고

사진기자 종구는
눈물이나 말리라는가
합죽선을 보내오고

뉴욕에서 울보가 된
나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목놓아 운다.

- 최정자의 「서울로 36」의 전문¹⁴⁾

② 의사친, 흥덕, 칠성골, 정읍 시기리
거기가 내 세계였다

외할머니가 어찌다 둔 딸 하나가
낳은 아들은 울음이 많았다

그 울보가 보고 싶어
외할머니는 밤을 걸어서
의사천으로부터 정읍으로 오셨다
옛을 고아서 머리에 이고

- 최연홍의 「정읍사」의 부분¹⁵⁾

인용시 ①의 화자이자 시인은 <서울>로 표상된 고향을 떠나 지금 타향인 뉴욕에 와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뉴욕에 적응하지 못하여 <샤워기를 틀어놓고/목 놓아> 울 만큼 고통을 겪는다. 그런 고통이 클수록 그의 고향을 향한 마음은 간절해진다. 그는 고향에서 이루어졌던 관계와 연속의 삶을 그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으며, 그러한 삶을 회상하고 간직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뉴

14)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 p. 58.

15) 최연홍, 『한국행』, p. 19.

육에서 나날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인용시 ①을 보면, 시 속의 이런 화자이자 시인은 고향에서 가능했던 연속과 관계의 삶을 뉴욕으로까지 이어오며 연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상병 시인의 부인으로 등장하는 <목여사>로부터 <찾잔>을 선물로 받고, 사진기자 <종구>로부터 <합죽선>을 또한 선물로 받음으로써, 이 인용시 ① 속의 화자이자 시인은 그가 그리워하는 고향에서의 관계와 연속의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용시 ① 속의 목여사와 종구와 화자는 서로 관계와 연속의 자장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물로 오고간 찾잔과 합죽선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와 같은 관계는 시 속의 화자가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용시 ②를 보면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고향의 풍경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런 가족사와 고향을 통하여 인용시 ②의 화자이자 시인이 그리워하는 관계와 연속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용시 ②에는 외할머니, 어머니, 외손자가 가족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이 관계와 연속의 삶을 살게 했던 고향의 이름으로 외사천, 흥덕, 칠성골, 정읍 시기리 등이 등장한다.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외손자인 인용시 ② 속의 화자이자 시인으로 이어지는 가족사의 끈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 곧 가족사회가 얼마나 대단한 관계와 연속의 장 속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이러한 가족은 고향의 속성을 표상하는 대표적 존재이다. 그리고 외사천, 흥덕, 칠성골, 정읍 시기리와 같은 이름으로 나열된 그의 고향 마을 이름들은 <거기가 내 세계였다>는 인용시 ② 속의 화자이자 시인의 역설처럼 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세계와 전혀 갈등이 없이 동화를 이룩했던 곳을 표상한다. 이 속에서 인용시 ② 속의 화자이자 시인은 아무런 소외감도, 이질감도, 단절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야말로 관계와 연속의 삶을 고스란히 살았던 것이다. 방금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실 이외에 인용시 ②와 관련하여 언급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옛을 고아서 머리에 이고> 외손자가 보고 싶어 <밤을 걸어서> <외사천으로부터 정읍으로> 오신 외할머니의 모습이다. 여기서 외할머니는 관계와 연속의 삶을 형성하는 주인공이다. 외손주를 생각하며 옛을 고는 모습, 그 옛을 머리에 이고 오는 모습, 그것도 밤에 걸어서 오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방금 말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상의 논의로 재미한인 시인들이 그들의 시를 통하여 고향이 지닌 관계와 연속의 삶을 어떻게 그리워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토록 관계와 연속의 삶이 이루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곧 밖에는 눈이 내릴지 몰라
그리고 移住하는 그의 東洋이웃을
그는 조금도 모른 채 昇天하고 있을지 몰라
지나치게 個人主義的인 이 나라 천국은
또 그만큼 지나치게 個人主義的일지 몰라.

- 최연홍의 「初겨울 小考 - 인디아나 詩篇」의 부분¹⁶⁾

- ② 「버거킹」에 앉아
유리창 밖을 내다보니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 이민온지 반년동안
조각조각 몸의 파편들이
흩어져
여태도
여기가 어디인가
파편들만 주우러 다니느라
배가 고파
겨우
우유 한 잔 주문했습니다

우유 한 잔이 힘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지만
그것밖에
소화 능력이 없어
여기 앉아
오가는 사람들
별별색깔 별별모양을

16) 최연홍, 『井邑詞』, p. 31.

구경만 합니다

- 최정자의 「서울로 28」의 부분¹⁷⁾

위에서 인용한 2편의 시를 보면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가해보면 우선 인용시 ①의 경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이란 나라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주의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과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는 부정적 측면도 내재시키고 있다. 인용시 ①의 시인 최연홍은 미국사회를 지배하는 <個人主義的> 속성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이 시에서 말하기를 아마도 개인주의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천국까지도 개인주의로 물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주의, 그리고 그것과 결합된 합리주의, 이 두 가지 정신이 지배한 사회 속에서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관계의 삶과 무상의 배려와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의 삶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에서의 사정이 이러할수록, 재미한인 시인들이 관계와 연속의 삶이 가능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인용시 ②를 보기로 하자. 인용시 ② 속의 화자이자 그 시를 쓴 시인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뉴욕으로 이민을 갔지만 그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아가 조각조각 해체되는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뉴욕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렇게 소화할 수 없는 뉴욕의 거리에서 그는 유리창을 통하여 행인들로 표상된 뉴욕의, 이방인 혹은 구경꾼으로 머물고 만다. 이방인 혹은 구경꾼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소외와 단절의 삶을 뜻한다. 인용시 ② 속의 버거킹 <유리창>을 벽으로 하여 안쪽의 시인과 바깥쪽의 사람들이 볼 수는 있으나 만날 수는 없는 것처럼, 이방인 혹은 구경꾼의 삶이란 진정한 만남과 연속이 불가능한 삶이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 속엔 관계와 연속의 삶을 갈망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적지 않다. 비

17)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 p. 49.

록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그와 같은 고향이 그들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데 적잖은 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3) 신화적 세계

고향은 신화적 삶이 가능한 곳이다. 그렇다면 <신화적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화적 삶이란 문명 이전, 역사 이전, 현실 이전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여도 신화적 삶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에덴동산에서의 삶이란 인간과 자연과 신이 서로 無償의 관계 속에서 우주적 삶을 이룩한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신화적 삶의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은 고향에서, 그것도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유년의 삶에서이다.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를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되, 이러한 신화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세계를 되살리고 싶은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 ① 다정했던 국민학교 친구들
 마지막 우리들 내장산으로 간
 봄 소풍을 기억하는가
 山寺 앞에서 紀念寫眞을 찍은
 몇몇은 그 寫眞을 찾지 못한 채
 떠나간 나를 기억할거야
 一學年이었던가 二學年이었던가
 學藝會의 劇場에서는 童話를 읽었던가
 그리고 정몽주의 후손(?)과의 씨름에서는
 내가 모두 이기고 있었다.
 老人堂 근처에 살던 마을 친구들은
 우리집 앞집이 방앗간이었고
 우리집 대문 옆에 한약방이 있었던 걸 기억할거야
 그때 몇 살이었던가
 가재잡이 나갔던 그 江물은
 지금 보면 정말 작은 개울일거야

멀리 멀리 우리집 마을을 지나
시장의 다리도 건너 곡마단의 텐트
까지도 걸어나갔을 때가 있었지

(중략)

作者未詳의 井邑詞를 읽을 때마다
나는 따스한 작은 동물이 되어
남해의 봄 햇살을 즐긴다.

- 최연홍의 「井邑詞」의 부분¹⁸⁾

②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갯빛 다람쥐,
남행의 기러기떼, 단풍잎 줍는
누이, 낙엽 태우는 효석, 가을은
물드는 숲 마을이다
나뭇가지 사이로 집들이 보인다
빈 나뭇가지에 새들의 집이 보인다

- 최연홍의 「가을」의 전문¹⁹⁾

인용시 ①은 시인의 고향인 정읍에 있었던 초등학교 시절의 풍경이다. 봄소
풍, 친구들과의 기념사진, 학예회, 씨름놀이, 가재잡이, 가재잡던 강물, 곡마단
구경길, 노인당, 방앗간, 한약방,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존재하는 풍경은
신화적 세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문명과 역사 이전의 것처
럼 존재하며, 실리와 이해타산의 너머 혹은 이전에 존재하며, 에덴동산에서의
일처럼 자족적으로 기능하며 존재한다. 최연홍은 이런 정읍에서의 일들을 떠올
리면 <따스한 작은 동물이 되어/남해의 봄햇살을 즐>기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신화적 세계 안에서 시인은 나이와 관계 없이 <따스한 작은 동물>
처럼 순해질 수 있으며 <남해의 봄햇살>을 즐기듯이 평온해질 수 있다.

인용시 ②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가을의 풍경을 그려보
인다. 구체적으로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갯빛 다람쥐, 남행의 기러기떼, 단

18) 최연홍, 『井邑詞』, pp. 36~38.

19) 최연홍, 『한국行』, p. 31.

풍요 줍는 누이, 낙엽 태우는 효석, 물들어가는 숲,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집들, 빈 가뭇가지 사이에 지어진 새들의 집, 이런 것들이 가을 풍경으로 인용시 ② 속에 묘사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풍경들 하나하나를 물론 그들의 어울림이 無償의 신화적 세계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 및 현세의 그 어떤 문법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세계, 그리하여 평화와 노래와 사랑만이 넘쳐날 것 같은 세계가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것이다.

신화적 세계는 고향을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 세속의 리얼리티를 익힌 사람, 그런가 하면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신화적 세계는 우리가 세속의 질곡과 문명의 이기 앞에서 기력을 상실할 때, 또는 그러한 삶 속에서 팍팍한 나날을 이어갈 때, 회상과 상상을 통해서나마 되살려내고 싶은 세계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세속과 문명사회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거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²⁰⁾

이런 점에서 신화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이지만 그것이 유달리 이민자의 신분을 가진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재미한인 시인들은 그들이 시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이민자라는 신분으로, 미국이란 땅에서 적나라한 생존의 현실 앞에 놓여 있다. 그들은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로 인하여 현실 이외의 곳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더욱이 그 땅이 소수계 이민자의 신분으로 머무는 낯선 땅이기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욱 만만치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생존문제는 철저하게 세속의 규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고향이고 그 고향은 이때 신화적 세계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20) 신화의 힘이 현대사회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며 그 힘이 인간사 속에서 얼마나 지속적인가 하는 점은, 조셉 캠벨, 『신화의 힘』, 이윤기 옮김(서울 : 고려원, 1992)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속 쓰린 사람들은 바다 저쪽에서 왔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 균등한 기회의 나라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위장에 금이 갔다
한국 악센트가 있는 영어는 속이 쓰리다
속 쓰린 사람의 위장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
눈 먼 미국 거지의 동양이
오히려 부러운 동양인의 속이 쓰리다
암 세포는 그 옆의 간으로도 번지고 있다
딸은 명문 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그는 오늘밤 'Black Korea'를 노래한
Ice Cube의 흉에 쓰러졌다
차라리 KKK에 맞아죽었더라면
내 속이 덜 쓰렸을 텐데

- 최연홍의 「위궤양」의 전문²¹⁾

위 인용시를 보면 재미한인들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소외를 가져다주는 일인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부르짖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균등한 기회>라는 그 찬란한 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 그런가 하면 인종차별과 폭력이 저변을 형성한 나라에서 항시 긴장과 공포를 느끼고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현실을 위 인용시는 전해주고 있다.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목숨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이 바로 그들이 처한 생존의 현실인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그들이 두고온 고향의 신화적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 그리움은 최연홍의 다른 시 「진달래꽃」을 보면 아주 인상깊게 표현돼 있다.

나는 봄이면
미국의 도시를 떠나
숲속에 핀 진달래꽃을 따먹는다
그리고 진달래꽃을 안고 나온다

나는 숲에서 나와
그 꽃을 마을의 소년에게

21) 최연홍, 『한국행』, p.109.

전한다
소년은 10년 후
청년이 되어
봄 숲속에서
소월(素月)을 만난다

- 최연홍의 「진달래꽃」의 부분²²⁾

위 시에서 <미국의 도시>가 세속적인 생존의 세계를 의미한다면, 숲속과 진달래, 그리고 그 진달래꽃을 안고 나오는 시인과 그 봄의 숲속에서 소월의 진달래꽃을 떠올리는 청년은 모두 신화적 세계를 의미한다. 위 시를 보건대 시인은 이 양자의 세계를 대비시키면서 신화적 세계의 회복과 그곳으로의 도달을 꿈꾸며 그리워한다. 그것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만이 <미국의 도시>가 의미하는 세속적인 생존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서 고향은 신화적 세계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들이 이런 세계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세계를 찾아서 간직하거나 그 세계를 상상로나마 꿈꾸어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모성적 세계

비유적 표현이 가능하다면, 고향은 어머니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고, 반면 세속은 아버지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은 우리를 품어안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곳이라면, 세속은 우리를 경계하며 엄격하게 평가하는 곳이다.

인간들은 차갑고 혼탁한 세속에서 투쟁가처럼 적극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날 영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부딪치게 되면 고향이라는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마음을 두기가 일쑤이다. 고향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을 익힌, 이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곳이며, 보호와 인정 속에서 유년기의 삶을 의탁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고향의 산과 들, 고향의 집과 이웃들, 고향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가 모성성을 띠고 있다. 그런 모성성

22) 위의 책, p.107.

에 대한 그리움을 재미한인 시인들은 고향을 노래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① 어머니가 여학교 때 수놓았던 비둘기는
내가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옆에서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갔어도
그 비둘기들은 살아남아
어린 시절 옆에서 평화를 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네준 비둘기, 그 비둘기는 태평양을 날아와
대서양 연안의 도시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古籀)를 넘으시고
아들은 흰 머리칼을 감출 수 없지만
비둘기는 아주 평화스러웠던
유년의 아들과 어머니의 시대
그대로 남아
날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떠난 파스한 채운으로
내 곁에 날아와
아들의 평화를 기구(祈求)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비둘기, 나의 비둘기

- 최연홍의 「어머니와 비둘기」의 전문²³⁾

② 뜨락에 들어섰을 때
베를 위에 계시는 어머니
이제 파도에 부서지는 햇살같이
부서져오는 記憶들
당신은 이제 初老를 지나셨지만
아직도 실을 따시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는,
그 노래는 싸이어린의 魔笛보다
더 사랑스러운,
폭풍우 이튿날의 햇별보다 더 따사로웠다

젖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는 어머니
세계의 旅路에 여윈 그의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실 뿐.

23) 위의 책, pp. 11~ 12.

뜨락의 라일락이 그의 歸鄉을
祝賀하고 있었다.

- 최연홍의 「歸鄉」의 부분²⁴⁾

인용시 ①에서 어머니가 여학교 때 수놓았던 <비둘기>는 바로 그것을 수놓은 <어머니>와 등가를 이룬다. 시인은 인용시 ①을 통하여 그 비둘기와 어머니가 자신의 정신적 보호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비둘기>와 <어머니>는 <평화>와 <모성> 그리고 <배려>의 상징물로서 이 시인이 어디를 가나, 그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이다. 그가 유학생으로 혹은 이민자로서 미국땅을 헤매일 때도, <비둘기>와 <어머니>로 상징되는 세계는 그를 따라다니며 보호하였고, 그가 흰 머리칼을 감출 수 없는 장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그 세계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고향을 떠올리면 언제나 생각나는 <비둘기>와 <어머니>, 이 두 존재는 시인의 마음 가장 아랫 쪽에 남아 있으면서 그에게 고향이야말로 모성성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존재보다 잘 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유지시켜준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인용시 ②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고향 또한 위의 인용시 ①을 논할 때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인용시 ②의 시인이 찾아간 고향에는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는 배를 짜며 가족을 생각하고, 그런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폭풍우 이튿날의 햇볕보다 더 따사>롭고, 그 어머니가 시인인 아들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모성의 눈물이 배어있다. <세계의 旅路>에 지친 아들이자 시인은 이런 고향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향으로부터 무한의 위로를 받는다. 그가 <세계의 旅路>를 지금까지 건너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여로 위에 오를 수 있는 것도, 그런가 하면 그가 앞으로 계속하여 <세계의 여로> 위를 달릴 수 있고, 모두 이런 고향의 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모성의 세계로서의 고향, 그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생기를 얻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 고향으로 직접 귀향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

24) 최연홍, 『井邑詞』, pp. 63 ~ 64.

에, 모성의 세계인 고향이 내면에 살아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거나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모성의 세계인 이런 고향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낯설은 이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처지이기에 그러하고, 이와 더불어 그들의 고향이 지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낯설은 이역에서의 삶은 아버지의 법칙에 의해 좌우된다. 그럴수록 모성의 세계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증폭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곳의 고향은 쉽사리 찾아가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지리적인 거리에 반비례하여 더욱 커진다.

다음에 인용할 최정자의 시 「서울로 42」를 보면 방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보다 확실한 실감으로 와 닿을 것이다.

숨쉬는 시간조차
주급에서 빼야하는
미국땅의 노동을
모르리라

삼백육십오일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해야
살아 남는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소시민들을 모르리라

노동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각에
시를 쓴다는 일이
웃음을 자아내는 일임을
꿈에도 모르리라

햇빛만 쨍쨍한 여름날에도
높이 필릭이는 성조기
그 틈서리로
소금국 같은 땀과 눈물로
동편 하늘에
어렴풋이
서울을 그려 넣는

가슴속엔
따갑게 통증이 자라고 있음을

서울
네가 모르리라.

- 최정자의 「서울로 42」의 전문²⁵⁾

생존을 위한 노동, 그 노동 속에 끼어드는 아버지의 냉정한 범칙, 그 범칙 아래서 숨쉴 곳을 찾는 시인, 그 숨쉴 곳의 하나로 서울이 등장한다는 것, 그 서울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쓰고자 하는 것이 조롱이 될 수도 있다는 비극,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위 인용시 속에 들어 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 모성성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예가 상당수 등장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자리이기에, 그것과 관련시켜 말하자면, 위 인용시 속의 <시를 쓴다는 일>과 동편 하늘에 어렴풋이 그려넣는다는 <서울>은 바로 모성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미국땅에서의 노동과, 가슴 속에 품어안을 뿐 즉시 달려갈 수 없는 서울과의 거리는,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성의 세계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숨막히는 현실의 표상이다.

모성성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품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계에 안기고자 하는 것은 현실 속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그와 같은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보다 강력하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러한 모성성의 세계와 만나는 일은 한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형성시켜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

5) 원체험의 세계

원체험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그리하여 생과 삶의 원형질이 되어버린 체험을 뜻한다. 원체험은 유년기와 소년기에 이미 형성되는데 그러한 체험의 형성은 대부분 고향이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5)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 pp. 65~66.

프로이트가 유년기의 체험을 중시한 것은 그때의 체험이 인간사의 원체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원체험은 수시로 우리를 조종하거나, 우리 앞에 나타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준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원체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체험은 한편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워찾아가고자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원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이 지배를 받지만, 그 원체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편안함을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좋든 싫든 원체험은 우리들 삶의 근저를 이루며, 그것은 <영원한 현재>의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수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체험의 형성지인 고향을 떠나 이민자로서 고향과 전혀 다른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 원체험은 더욱더 그 존재를 알리며 이민자의 내면을 지배한다. 바로 재미한인 시인들의 고향 시편을 보면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거니와, 그것은 한 인간이 이질적인 세계와 마주칠수록 원체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 ①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헨델, 카시니, 모차르트,
로시니, 베르디, 비제의 음악보다
우리들 앵콜에 응답한 <아리랑>이
그날 밤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른 <가고파>가
그날 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외국어로 부른 <아리랑>, <가고파>가
오히려 우리들 폐부를 찌른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혹시 <아리랑>을 부르다 울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떨려왔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를
정말 생각하며 떨려왔습니다
- 최연홍의 「아리랑 - 루드밀라 남에게」의 부분²⁶⁾

- ② 이제 이역의 방향을 끝내고 싶네요

26) 최연홍, 『한국行』, pp. 130 ~ 131.

세상 끝까지 다녀본 사람은 내 나라에 돌아와
 <<삼국유사>>를 찾아 땅 속에서 울리는 종을 깨내고
 주몽의 칼자루를 찾아 고조선의 별판을 말달리고 싶어요
 백제 별판을 찾아 계백의 뼈라도 찾아
 영혼의 추모제라도 드리고 싶네요
 고관사 뒤뜰의 찬물을 마시며
 삼천궁녀의 설화를 쓰고 싶네요

- 최연홍의 「1993년 12월에」의 부분²⁷⁾

인용시 ① 속엔 원체험을 상징하는 노래와, 그 이후의 체험을 상징하는 두 종류의 노래가 대비되고 있다. 루드밀라 남이 부른 <아리랑>과 <가고파>가 이 시 속의 화자를 포함한 모든 조선인의 원체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헨델, 카시니, 모차르트, 로시니, 베르디, 비제 등의 음악은 그 이후에 형성된 교양으로서의 체험내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자가 원체험으로써 몸 속 한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린 세계라면, 후자는 이차적 체험으로써 몸의 한 부분에 가볍게 등지만을 들고 있는 세계이다. 위 인용시 ① 속의 화자는 루드밀라 남과 유사한 처지의 이민자 신분으로, <아리랑>과 <가고파>라는 원체험의 성감대가 자극되는 현장에서 <폐부>를 찢린 것 같은 충격과 울림, 그리고 떨림을 경험한다. 재미한인 시인들은 물론, 이민자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원체험의 자극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존재가 움직이는 시간을 경험할 것이다.

인용시 ②를 보면 한 개인이나 특별한 장소에 모였던 일부 사람들의 원체험에서 더 나아가 한 민족 집단의 원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한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원체험과 더불어 민족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민족적 원체험을 함께 지니고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의 인용시 ① 속에 등장하는 <아리랑>과 <가고파>라는 노래도 민족적 동질성을 지닌 원체험의 한 양상임엔 틀림이 없지만, 인용시 ② 속에 등장하는 <삼국유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화 및 설화는 그야말로 민족적 차원에서의 원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실례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언

27) 위의 책, 119 ~ 120.

급하자면, 인용시 ②속의 화자는 개인의 원체험을 넘어 한민족으로서의 원체험을 <삼국유사> 속에서 찾아내고, 이어 그것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 속에 들어 있는 신화와 전설, 그것은 어찌보면 역사 너머의 허황한 세계 같지만, 실은 민족적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빌려 말한다면, 집단무의식의 원형을 이루는 것으로²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체험은 이성적인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분출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원체험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무력해진다. 가령 최정자의 다음과 같은 시를 보자.

뉴욕에서 제일 아름다운
쥘리워싱턴 다리를 건너
허드슨 강가

군함도 드나드는 허드슨 강은
강이 아니라 바다여서
맨해튼 빌딩들이
바다속에 빠져 춤추는듯 보이는데

하얀 물새
내 어깨 위를 돌아
거대한 다리
쇠줄 난간에 앉을 때

물새도 알지 못하는
서울의 한강을 생각하는데

육이오 전쟁후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놓여지던

28)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1979), pp. 49 ~ 55. 이부영은 이 책에서 개인적 무의식이든 집단적 무의식이든 그것은 ‘혹’이 아니고 ‘샘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 무의식이야말로 떼어 버리거나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며 창조적 가능성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거의 무의식처럼 원체험으로서 내재화되어 있는 고향에 대해서도 방금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일 한강교를 생각하는데

후둑후둑 비가 오기 시작해
물새는 간데 없어

그때 제1한강교는
쥬지 워싱턴 다리보다
몇배나 더 컸던가
가슴 설레었는데

오늘
허드슨 강가
절벽 위에서는
비만 맞아 몸만 젖는다

- 최정자의 「서울로 23」의 전문²⁹⁾

위 인용시 속의 화자이자 시인은 뉴욕의 허드슨 강을 보며 서울의 한강을 떠올린다. 그런가 하면 그는 뉴욕의 쥬지워싱턴 다리를 건너며 서울의 제일 한강교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서울의 제일 한강교를 떠올리며 육이오 전쟁과 제일 한강교의 거대함 앞에서 가슴 설레었던 유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바로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의 한강과 제일 한강교 그리고 이들과 얽힌 유년의 기억은 위 인용시 속의 화자이자 시인의 원체험을 형성하는 것이면서 원체험의 자연발생적 분출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이곳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그 대상과 더불어 고향에서 형성된 원체험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원체험은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 인간이, 그 원체험이 형성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원체험의 작용은 더욱 크다.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서 원체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원체험의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29)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 pp. 42 ~ 43.

생각할 수 있다.

6) 타향의 고향화

고향이 그리울 때, 그 그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아예 귀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향이 불가능할 때 그 두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창작활동을 통해 상상의 세계로나마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도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세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은 고향을 떠난 이향자로서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향처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³⁰⁾ 이 세번째 방법을 추구하는 일은 자신들의 삶을 과거지향적인 것에서 현실지향적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금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신들의 고향처럼 만들 고자 할 때, 그 고향은 제2의 고향으로서 제1의 고향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고향은 과거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

재미한인 시인들의 고향 시편을 보면 이런 노력이 군데군데 엿보인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고향상실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현실을 수용하려는 중요한 삶의 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이제 韓人村이 太平洋 건너
로스앤젤리스에 서고 五萬이
넘실거리는 都市에 우리들
植民地가 선다

좁은 땅을 떠나 살 수밖에 없지
그나마 작은 땅 非武裝地帶에서,
임진강 沿岸엔 군무를 마친 者는
高句麗 깨어진 칼자루를 찾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지.

30) 이 사실에 대해서는 향수병의 치유방책을 논한 전광식, 앞의 책, p. 125를 참조할 것.

- 최연홍의 「移民」의 부분³¹⁾

② 어디나 뿌리를 내리리라
누가 와서
내 땅이라고 내어쫓으면
비켜주리라
비켜앉은 자리에서도
나는 꽃피우리니

(중략)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덜고 설 수 있는 땅이라면 어디나
하얗게 피어나리니
그대를 만나리니

- 최정자의 「개망초꽃 사랑·1」의 부분³²⁾

최연홍은 인용시 ①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민을 가는 것이야말로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는 일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그 미국 땅에 한국의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나 같은 일이 된다. 이런 논리 앞에서 재미한인들이 소수계 이민자로서 느끼던 변방의식과 소외감은 사라진다. 그리고 고향부재의 상실감도 사라진다. 그 대신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런 감정 속에서 그들에게 고향은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세계이며, 과거의 세계와 현재의 세계 사이에 단절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최연홍은 앞의 인용시 ① 이외의 작품에서도 이민의 삶을 식민지 개척의 삶으로 등가화하며, 이런 등가화의 과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은 <충독>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곤 한다.

인용시 ②의 시인 최정자는 서울로 표상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서울로」 연작 79편을 쓴 사람이다. 그가 쓴 79편의 시는 그의 시집 『서울로 서

31) 최연홍, 『井邑詞』, p. 54.

32) 최정자, 『개망초꽃 사랑』, pp. 13 ~ 14.

울로』 속에 들어있거니와, 그는 이 시집을 통하여 뉴욕으로 이민오기 이전의 세계인 서울에 대한 막무가내의 그리움만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서울로 서울로』 다음 시집인 『개망초꽃 사랑』으로 오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서울로 표상된 과거의 고향만을 그리워하는 데서 방향을 달리하여, 타향인 뉴욕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겠다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시 ②가 말해주듯이, 최정자는 개망초꽃이 흩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자신도 타향에 대한 낮가림을 더이상 하지 않고 그곳이 어디거나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며 뿌리내리고 살겠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의지 앞에서 고향과 타향의 형식적 구별은 눈녹듯 사라지고 만다. 그 대신, 그가 사는 곳이면 어디나 고향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³³⁾

요컨대 인용시 ①의 시인 최연홍은 이민의 땅을 식민지로 여기겠다는 호기를 통해서, 인용시 ②의 시인 최정자는 이민의 땅을 고향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인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땅이 비록 낯선 땅이지만, 그 속에서 현실긍정과 미래지향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 것이다.

3. 결 어

지금까지 필자는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서 고향 시편이 양적으로도 엄청난 분량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뜻을

33) 최정자는 이런 사실과 관련하여 그의 시집 『개망초꽃 사랑』 서문인 <시인의 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 <이민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고다님을 아는가. 더러는 성공이란 걸 했다고 거대한 집과, 번쩍이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그들의 가슴을 열어보라, 얼마나 불안하고 슬픈 것들이 까맣게 묻어 있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고다니는 슬픔을 모르는 그대, 그대가 두렵다. 뽕헐 때 뽕히더라도, 버려질 때 버려지더라도, 여름에도 차디찬 남의 땅에서, 꽃피우고 살아가는 「개망초꽃」을 위하여, 소외감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 詩를…… >.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그들의 고향 시편 속에 숨어 있는 고향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미한인 시인들의 고향 시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향의 의미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이민이란 한 사람이 익숙했던 세계를 떠나 이질적인 세계로 뿌리를 옮겨 심는 일과 같은 것이기에 자아정체성의 위기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이들에게 대두된다. 그런 가운데서 이민자인 재미한인 시인들은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자아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는 고향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그리워했던 것이다.

둘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관계와 연속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질감과 소외감을 갖게 하는 낯선 이민의 땅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땅인 미국에서, 관계와 연속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삶이 이룰수록 그들의 마음은 관계와 연속의 삶이 가능했던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고향이 지닌 이와 같은 관계와 연속의 세계는 그들의 어려운 현실을 치유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신화적 세계를 의미하는 곳이었다. 이민자로서의 재미한인 시인들은 긴장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나라한 생존의 현실 앞에 마주서게 되었고, 그것은 철저하게 세속의 문법에 지배받는 세계였다. 세속의 문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실낙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다. 이런 실낙원과 같은 현실 속에서 재미한인 시인들은 신화적 삶이 가능했던 세계를 그리워했던 것이고, 그런 신화적 삶이 가능했던 세계로 고향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의 고향은, 그 가운데서도 유년의 고향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 우주적 차원의 화해를 이룩했던 신화적인 곳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모성적 세계를 의미하는 곳이었다. 모성적 세계는 대상을 품어안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쉬게 하는 곳이다. 이민자인 재미한인 시인들의 현실적 삶은 이런 모성적 세계와 달리 아버지의 냉엄한

법칙이 지배하는 배제와 시비와 투쟁의 세계이다. 그런 세계 속에서 재미한인 시인들은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모성적 세계의 대표적 공간으로 고향이 떠올랐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향의 집과 마을, 가족과 친지, 자연과 가축들은 모두가 모성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비록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 환상은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

다섯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원체험의 세계였다. 이민자가 아니라도 고향은 원체험의 세계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장돼 있지만, 그것의 출현은 이질적이고 낯선 세계 속의 이민자인 경우 더욱더 빈번하고 강렬하다. 재미한인 시인들이 현실적으로는 미국 땅에 살면서 그 미국 땅의 어떤 것을 보고 만나더라도 그것들이 고향에서의 원체험과 오버랩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원체험은 평생 동안 한 인간을 지배한다. 그만큼 원체험의 생성공간이자 기억공간인 고향은 한 인간의 전생애를 따라다닌다. 이런 원체험의 작용을 보면 고향이야말로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여섯째로,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고향은 고향만이 고향이 아니라 타향까지도 고향화하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타향을 이처럼 고향화하면 고향과 타향의 경계가 약화되고 고향의 개념이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현실을 긍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유를 하게 된다. 이런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민자로서 온전히 귀향을 할 수 없는 한, 그리고 그가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과도한 그리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결국 타향을 고향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일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간사 속에서의 고향도 재미한인 시인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대상이지만, 종교적 및 우주적 차원에서 고향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종교적 및 우주적 분향으로서의 신의 세계를 찾아가거나 믿어보고자 하는 일이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에 비중있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러한 세계에 의지함으로써 현실적인 고향 상실감을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방금 앞에서 종교적 및 우주적 분향으로서의 신의 세계라고 할 때, 재미한인 시인들의 경우, 그것은 거의 다

기독교와 관련된 신의 세계이다.³⁴⁾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현실 속에서 상실하고 살아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대폭 완화시켜 주고 그 고향 상실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도 대폭 치유 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고향, 재미한인 시, 정체성, 신화적 세계, 원체험, 연속성, 모성적 세계.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연홍. 『井邑詞』. 서울 : 나남, 1985.
———. 『한국행』. 서울 : 푸른숲, 1997.
최정자. 『서울로 서울로』. 서울 : 오상, 1990.
———. 『개망초꽃 사랑』. 서울 : 모방과 모반, 1993.

2. 논저 기타

-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서울 : 일신사, 1973.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 교육문화사, 1993.
———.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1995.
이광규. 『在美韓國人』. 서울 : 일조각, 1997.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1979.
이승원. 「<<文章>>지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試考」. 『국어교육』 36호 (1980. 3).
전광식. 『고향』.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9.

34) 그런데 본고에서 재미한인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대표적 인 텍스트로 선택한 최연홍과 최정자의 시집 속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고향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재미한인 시인들의 시나 시집 속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고향의 의미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제해만. 「한국현대시의 고향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정효구. 「재미동포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의식의 변천과정 연구」. 『개신어문연구』 18집 (2001. 12).

_____. 「재미동포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의식의 변천과정 연구」. 『개신어문연구』 19집 (2002. 12).

버거, 피터 외. 『고향을 잃은 사람들』. 이종수 역. 서울 : 한벗, 1981.

캠벨, 조셉. 『신화의 힘』. 이윤기 옮김. 서울 : 고려원,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Home Town in the Korean-American Poetry

Jeong, Hyo-Go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aning of home town in the Korean-American poetry. As the result, I got six kinds of meaning of home town in Korean-American poetry.

- 1) A home town is the origin of self-identity.
- 2) A home town is the place of relationship and union.
- 3) A home town is the world of mythical life.
- 4) A home town is the place of maternity.
- 5) A home town is the world of first-experience.
- 6) A strange land becomes a home town gradually by Korean-American's effort.

In Korean-American poetry, the home town is an important theme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I believe that new way of understanding Korean-American poetry can be made by this work.